

- 2018년 제5회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2018. 12. 3.(월)

도시공간개선단

「2018년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 의 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2. 3.(월) 16:00~18:00
-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1
- ◆ 참석위원 : 11명(총 17명으로 구성)
 - 승효상(위원장, 이로재 대표)
 - 홍우석(代 문화본부장), 이길성(代 주택건축국장)
 - 김승수(代 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경선(서울시 시의원)
 - 최경란((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임옥상(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이창현(국민대학교 교수)
 - 조민석(매스스터디스 대표),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 ※ 2019 서울비엔날레 공동총감독(임재용) 및 큐레이터 참석
- ◆ 상정안건 : 6건
 1. 홍보 및 민간재원확보 전략수립 컨설팅 추진현황 보고
 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보고
 3.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 큐레이터 선정
 4.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보고
 5. 기타 현안
 6.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안)

간사 성원 보고

위원장 개회 선언

- 지금부터 2018년 제5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 및 민간재원확보 전략수립 컨설팅 추진현황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2017 서울비엔날레 추진시 홍보 부분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추진업체가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것이 문제이기도 하였으나 비엔날레가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지금 보고해주신 내용처럼 큰 틀에서의 홍보는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엔날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영역별, 주제별 대상이 분명히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하여 홍보를 실행해야 합니다. 감독뿐만아니라 큐레이터가 이런 점을 염두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한 홍보는 누구보다 큐레이터가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음엔 전체에 대한 홍보를 나중에는 내용에 대한

홍보를, 예를 들면 건축분야, 대학생 또는 식량도시와 관련된 커뮤니티 등 영역별로 기획자와 함께 기획단계부터, 어떻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즉 콘텐츠를 홍보해야 합니다.

- 또한 홍보전략 내용에 구체적 홍보실행방안과 서울시에서 지원가능한 홍보분야와 규모도 감안하여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전략수립 단계임을 고려하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 드리는 부분은 국내에도 훌륭한 비엔날레가 있지만 서울 비엔날레는 국내 비엔날레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와 경쟁하는 것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비엔날레는 어떤 전략으로 홍보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홍보는 서울시가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축제 홍보로 방향을 잡으면 곤란합니다. 해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점을 꼭 전략수립에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2017 서울비엔날레는 1회 행사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중 가장 아쉬운 점은 콘셉트에 대한 디벨롭먼트와 홍보가 분리되어 진행된 점입니다. 비엔날레가 무엇인지 서울비엔날레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통적 홍보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전략적 홍보 준비 부분은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비엔날레의 내용을 담보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 2019 서울비엔날레는 집합도시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개념을 설명하고 풀어낼 때 전혀 다른 키워드가 나올 가능성

이 높습니다. 우선 총감독이 집합도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콘셉트를 설정해야 서울비엔날레의 집합도시의 콘셉트 디벨롭먼트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해외에서, 서울에서, 서울시 내부공무원들 그리고 관계자별 홍보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적 홍보는 충분합니다. 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집합도시의 세부적 내용과 동떨어진 홍보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비엔날레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총감독과 사전논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어떤 키워드를 전달할지, 전문가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서울비엔날레가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생산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홍보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총감독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호소하는 내용과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2017 서울비엔날레는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타깃별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축하고 구체적으로 좁혀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민간재원 확보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폰서와의 관계 구축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어떻게 이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타 비엔날레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을 전략수립에 담아내는데 참고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각 기업별로는 이미 내년도 후원계획을 포함한 재정계획이 수립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민간재원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소규모 재정규모의 후원확보전략 위주로 진행하시기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메인(퍼머넌트)후원확보 전략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2.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추진현황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재단설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지요?

〈○○○〉

-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립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설립을 위한 출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

○ 자산을 포함하여 약 65억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3.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 큐레이터 선정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도시전 큐레이터로 참여하던 아나벨레즈는 참여하지 하는 것으로 되었는지요?

〈○○○○〉

○ 큐레이터 업무협약 추진 관련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 행정적 지원 등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요?

<○○○>

-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책임소재, 큐레이터 역할 및 세금관련 등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관련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온도차가 있습니다. 하차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내의 도시전 큐레이터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 큐레이터 선정 등 관련사항을 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 위원>

- 아닙니다.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큐레이터 관련하여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시 총감독의 권한인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정 등 큐레이터 관련하여 총감독이 결정합니다.

<○○○ 위원>

- 도시전 추진에 있어서 국내총감독과 해외총감독 간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지요?

<○○○>

- 도시전 리스트업 관련하여 해외총감독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추진은 국내총감독이 진행합니다.

<○○○ 위원>

- 두 감독 간 역할분담이 합의 되었는지요?

<○○○>

- 네 합의하에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위원>

- 향후 큐레이터 업무협약 등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처음보다 많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다만 국내와 해외 큐레이터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 부분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4.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안건설명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요?

<○○○>

- 국내총감독 요청에 의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비엔날레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건축뿐만아니라 도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비엔날레를 알리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함께할 수 있는, 참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참여의사가 있었음에도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위원〉

- 도시건축비엔날레에 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건축 위주의 행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인 만큼 도시 분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비엔날레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시에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총감독께서는 향후 많은 분들과 협력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협력 및 협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

- 예를 들어 영화영상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글로벌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여러 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위원〉

- 취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드리자면 서울비엔날레가 국제행사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다른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또는 예정인 전시들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비엔날레 기간에 개최하는 전시 등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서울비엔날레의 주제와 연결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5. 기타 현안 논의

〈보 고 자〉

- 장소와 관련한 현안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지난 1회와는 반대로 DDP에서 주제전을 진행하고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에서 도시전을 진행합니다. 지금 우려되는 점은 돈의문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돈의문 전체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공간이 임대 예정이고 또 일부 공간은 타 부서에서 협조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서울비엔날레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도시건축센터 1층에서 3층까지의 공간입니다. 작년에 도시전을 진행한 DDP면적의 약 40% 정도 규모를 도시전 진행이 가능한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돈의문 운영주체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의견을 주셨고 돈의문 야외공간이 약 1,800평 정도이니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더 재미있는 전시가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도시건축박물관 지하에는 Finding Seou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현장프로젝트와 글로벌스튜디오는 세운상가를 활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 서울비엔날레는 동쪽은 DDP, 서쪽은 돈의문으로 하고 그 사이 다른 장소, 서울 도심 곳곳을 활용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돈의문 일부공간이 임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임대 조건에 비엔날레 기간에는 비엔날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엔날레와 어우러져서 진행하면 됩니다.
- 서울비엔날레는 도시공간개선단 부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당연히 모든 부서가 협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의문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서울비엔날레 기간에는 협력하는 조건을 두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문서 등으로 공식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서울역사박물관 뒤쪽에 길이 약 200M정도의 벙커가 있습니다.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아 활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자〉

- 게트스시티 추진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교류가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펜하겐의 경우 한-덴 수교50주년의 의미가 있고 액티브한 전시와 인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메데인의 경우 이전에 리관유세계도시상 수상하고 그 다음 서울시가 수상하였습니다.

메데인과 서울이 back-to-back 교류프로그램도 있으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도시 중에는 2016 북경디자인위크에 서울을 게스트시티로 초청한바 있어 북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현재 해외총감독이 아디스아바바를 방문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게스트시티는 인적, 물적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 2017 서울비엔날레시 런던과 비엔나를 게스트시티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진행을 못한바 있습니다. 게스트시티는 내용적으로는 추진이 가능하나 형식적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간 다시 말해 서울시와 게스트시티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국제교류차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위원〉

- 총감독께서 최종 확정하시어 서울시에 추진 요청하고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6. 2019 서울비엔날레 기획안

□ 안건설명

□ 위원 발언 내용

〈보고자〉

- 참고로, 최근 Collective를 주제로 한 많은 전시를 보았습니다. 2019 서울비엔날레의 주제인 Collective city의 부제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로 진행하고 있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 위원〉

- 프로그램별 예산 배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보고자〉

- 현재 큐레이터별 기획안을 근거로 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시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세계를 향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정책, 사업들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간의 프로젝트를 보여줄 기회를 찾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서들과도 협력하여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비엔날레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서울비엔날레가 그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장(長)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국내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비엔날레가 전시하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도시들이 서울비엔날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자〉

- 평양전 추진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위원〉

- 서울비엔날레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 고 자〉

- 예산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리면 순수 전시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2017 서울비엔날레 예산집행 결과도 참고하여 예산배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재원 확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 위원〉

- 위에 나온 내용 중에 사업설명회 관련하여 유관기관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의미가 있지만 그와 함께 서울시 내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 내부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전시, 연계전시의 의미도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보고하신 기획안은 대중성 확보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장이나 Finding Seoul과 같은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훌륭한 기획안이 나왔지만 예산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 도시전의 경

우도 골목길을 활용한다고 하면 venue를 만들면서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많은 행사에 사용된 자원을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담아서 기획에 반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주제전 보고와 관련하여 주제전 장소를 DDP로 진행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그 공간에 담아내는 것이 가능할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DDP의 경우 설치 등 진행하는 것이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공간의 경우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제전 콘텐츠의 경우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전시해도 될 만큼 훌륭한 기획안이지만 과연 ‘도시는’이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향후 기획안 발전시 이러한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서울비엔날레가 나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점과 직결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 주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

- 돈보다 이야기입니다. 말이 서야 비엔날레가 섭니다. Collective 개념은 어렵지만 글로벌스튜디오 프로그램이나 현장프로젝트는 이해도 쉽고 내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도시전과 주제전은 어떻게 Collective인지 친절한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셨던 부제와 관련하여 키워드를 선정할시 그것이 시정홍보로 다운사이징 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지금부터, 기획 단계부터 함께해야 합니다.

〈○○○ 위원〉

- 총감독께서는 오늘 회의 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 원 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폐회선언

- 이상으로 2018년도 제5회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